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우리 민족이 3수를 좋아한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다. 우리는 무언가 시작할 때 “하나 둘 셋” 하고 시작한다. “하나”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 둘”이라고도 하지 않고 꼭 “하나 둘 셋”이라고 한다. 이 말은 하나 또는 둘로는 안 되고 셋이 되어야 완성이 된다는 말이다. 기위바위보를 할 때도 꼭 삼세판한다. 무슨 내기를 해도 삼세판을 한다. 이것은 셋이 되어야 완성이 된다는 뜻이다. 삼신할머니, 천자인 삼신, 삼존불, 삼위일체 등등 하나 또는 둘로서는 완성이 안 되고 셋이 되어야 완성이 된다. 완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으로서는 완성이 안 된다. 셋이 되어야 완성이 된다.



우리는 무슨 내기를 해도 삼세판을 하려고 한다 기위바위보를 해도 세 번으로 승부를 가린다

성경의 목적은 에덴동산 회복

삼수의 원리와 완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아 없을 것이다. 전지장조를 비롯하여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삼손과 데릴라 등등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실려 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는 모르고 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에덴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해와가 동산을 쫓겨난 후 다시 그 후손들이 에덴동산을 회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원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라는 말 속에 삼수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삼위일체라는 말은 한 몸은 한 몸인데 삼위가 있다는 말

이다.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는 것처럼 같은 한 몸인데 위는 3개라는 말이다. 기독교에서는 삼위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비합리적인 말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동산에 계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 또한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나라 천국에 살 수 있지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므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라고 해야 맞지, 에덴동산에 살지도 않았던 예수를 삼위일체로 끌어들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의 모순이다.

삼위일체라는 말속에 비밀이 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하여 삼위일체가 깨졌다는 것이다. 삼위일체가 깨졌다는 말은 하나님 따로 아담하나님 따로 해와하나님 따로 각

자 갈라졌다는 것이다. 즉 아담하나님은 남자가 되고 해와하나님은 여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삼위일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에덴동산 낙원을 잃어버리고 지금과 같은 고통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영생의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무한한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1위의 하나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삼위가 깨지게 되면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는 무한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죽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런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왜 전쟁을 막지 못할까? 전쟁 말고도 다른 엄청난 재앙을 왜 막지 못할까? 왜 이 세상에서 악을 없애 버리지 못할까?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음이 유행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세상이요 사바세계요 고통의 세계이다.

삼위일체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급선무

그래서 한 분은 하나님의 가장 급선무는 먼저 무너지고 깨진 삼위의 하나님을 도로 찾아 삼위가 일체가 되는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위의 하나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다시 완성이 되어야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다시 완성이 되는 그 비밀스런 과정을 설명한 책이다. 태초에 삼위일체가 깨져서 일위의 하나님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이 다시 잃어버린 두 위의 하나님, 즉 아담하나님과 해와하나님을 도로 찾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그 기막히고 가슴 먹먹한 사연이 이 책에 들어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셨는지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27>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치 못한 것은 폐한다”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상을 책망한다고 하였고(요 16:8)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치 못한 것은 폐한다(고전 13:10)고 하였다. 온전한 자가 나오면 온전치 못한 자의 말과 기록은 폐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긴자가 어두운 세계를 밝히는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있다. 어둠을

밝힌다고 하니 태양 빛이나 전깃불 같은 빛인 줄 아는데 성경은 영적 말씀이므로 마음의 빛을 말하는 것이다.

빛은 마음이고 마음은 빛이므로 빛의 마음은 지혜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천국의 소재는 어디인지, 또 지옥과 마귀는 무엇인지 환하게 알려주는 것이 빛인 것이다.*

발행인 칼럼

승리자가 받은 시험

종교를 창시한 교주들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고 그것을 이겼다고 한다.

예수와 석가의 유혹

예수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40일간 받았다고 한다. 사탄 마귀는 금식을 하는 배고픈 예수에게 먼저 돌을 빵으로 만들어보라고 유혹하지만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여 유혹을 물리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 줄 것이니 뛰어내리라는 유혹에 시험을 하지 말라는 말로 유혹을 뿌리쳤고, 마귀인 나에게 앞뒤로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여 유혹을 이겼다고 한다. (마4:1-11 참고)

그러나 아담이긴자 조희성님은 실제의 현실에서 같은 종교를 믿는 동료 신앙인들로부터 직접적인 시험을 받았다. 신앙의 동료들이 마귀라고 핍박하고 구타하고 가래침을 신사양복에 뱉고 맞아 죽으라고 돌을 던졌다. 그러나 한번도 후퇴를 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여 이겼던 것이다. 힘으로 대항하여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 중의 죄인’이요, 이와 같은 괴수 죄인을 나 대신 때려 주시니 감사합디다라며 선으로 모두 참고 이겨냈다.

하나님이 마귀를 이긴 것이지 자신이 마귀를 이긴 것이 아니다

또한 예수나 석가는 자신이 마귀의 유혹을 이겼다고 하지 마귀의 상대의 영인 하나님이 직접 이겼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아담이긴자가 예수와 석가의 경지를 넘어서는 완성자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와 석가는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자기자신인 줄 몰랐지만 아담이긴자는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자기 자신 곧 마귀이므로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마귀를 이겼다고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희성이라는 마귀의 영을 이기고 완성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였던 것이다.

석가 또한 성불하기 직전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마라 파피야스라고 하는 마왕이 처음에는 자신의 딸 셋을 보내 유혹하였으나 안 넘어가자, 군대를 보내 수행을 포기할 것을 협박하고, 수행을 포기하면 마왕의 자리를 주고 전륜성왕이 되게 하겠다고 유혹하였지만 그 유혹을 다 이겼다고 한다. (나무위키 ‘마라 파피야스’ 참고)

그런데 예수나 석가의 유혹은 아담이긴자 조희성님이 받은 유혹과 시험과는 차원이 아주 다르다. 즉 예수나 석가의 유혹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의한 유혹이다. 이것은 번뇌이자 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탄 마귀란 뿔 달리고 무서운 모습을 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이긴자가 과연 자신이 좌절하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존재인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갖은 모양으로 시험할 대로 다 한 후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니 스스로 조희성의 몸에 좌절하였던 것이다.*

어떻게 삼위일체로 회복되었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져서 하나님 따로 아담하나님 따로 해와하나님 따로 각각 남게 되었다고 앞의 기사에서 말했다. 그래서 아담하나님은 남자가 되었고 해와하나님은 여자가 되었다고 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만물 속에 있는 음양을 말하는 것이다.

일위의 하나님을 모셨던 박태선 장로님

그래서 먼저 일위로 남아있던 하나님이 박태선 장로님에게 오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박태선 장로님에게 업정

난 사명을 주었다. 바로 태초에 마귀에게 빼앗긴 두 위의 하나님, 즉 아담하나님과 해와하나님을 도로 찾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하라는 사명을 박태선 장로님은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비밀스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박 장로님은 전도관을 설립하여 아담과 해와를 찾기 시작한다. 박태선 장로님이 전도관을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박태선장로님이 행한 이적은 당

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치료되었고, 병어리가 말을 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는 그야말로 성경에 예수가 행했던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150만 명이 나 되는 신도들이 모여들었던 것이다.

모진 시험을 통과하고 이긴 조희성님

박태선 장로님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행하신 것은 교인들을 모아서 종교를 차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한 가지 사명뿐이었다. 잃어버린 아담과 해와를

찾아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완성시키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찾은 아담후보자가 조희성님이고 해와후보자가 홍영배님이다. 박태선 장로님은 이 두 분의 아담 후보자와 해와 후보자를 따로 할 수 없는 모진 시험을 했다. 이렇게 흔들려 보고 저렇게 흔들려 보고 갖은 시험을 다 했다.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만 둘째 아담이 되고 둘째 해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좌절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명을 맡길 만한 인물이 되지 않고서는 맡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모진 시험에서 승리한 분이 바로 조희성 이긴자이신 것이다*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해방 후 마지막 道人들의 역사!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삼신으로 완성된 한 사람이 출현하기까지 언해하고 견디낸 구도역정!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엔 수많은 道人들이 있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기적을 보여주었던 한민족의 정통 道人들. 빈민 일제강점기 전부터 급속히 한민족으로 들어왔던 기독교의 운혁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찾아들었으며 공교롭게도 6.25전쟁 후 의숙하나 한 둘 한국의 도역 道人들이 모여서고 道人들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잊혀지게 되었다.

60년대 국내 최고의 기독교 부흥을 이끌었던 박태선 장로의 출생지 겸서 그 두 분은 기독교로 사적이며 최고의 부흥을 이끌었고 기독교를 부흥시켜야 할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키워낸 한 명의 道人 삼신으로 완성된 한 사람이 출현한다.

오늘날 많은 민족종교에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사람 속에 하나님과 상대적인 마귀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른다. 지금의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중매인이기 때문에 혼란 문제가 발생한다. <추천사>에서 일부 발췌

이슬성신이 함께하는 유일한 종교 승리제단



이슬성신은 불경에서는 감로(甘露)라고 하기도 하고, 격암유록에서는 감로해인이라고도 하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의 증표이다. 이슬성신이 함께하는 승리제단은 인간이 세운 일반 종교가 아니라 이기신 하나님이 설립한 참종교이다.*